



해열진통제 타스멘정 (아세트아미노펜)

일반의약품	
의약품 분류번호	114 해열·진통 소염제

【성분·함량】1정 중
아세트아미노펜(KP).....325mg
첨가제(동물유래):유당수화물(소·우유)

【성상】백색의 원형정제

【약리작용 및 특징】

- 타스멘정은 아스피린 사용시에 흔히 생기는 위장탈이나 위자극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.
- 타스멘정은 위궤양환자나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타스멘정은 아스피린이나 피린계 약제에 알러지성인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적합합니다.
- 타스멘정은 평상시 기타 체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타스멘정은 경구투여후(복용후) 신속히 소화관에서 흡수되어 1-2시간 후에는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며 약 8시간에서는 거의 배설됩니다.

【효능·효과】

- 주효능 : 효과
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(통증), 두통, 신경통, 근육통, 월경통, 염좌통(뻥 통증)
-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.
치통, 관절통, 류마티양 동통(통증)

【용법·용량】

성인 :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회 0.3g~1.0g 1일 3-4회 경구투여 합니다.(복용합니다.)
1일 최고 4g까지 투여할 수 있습니다.
연령(나이), 질환,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합니다.

【사용상의 주의사항】

1. 경고

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.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.

2.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

- 이 약에 과민증 환자
- 소화성궤양 환자
- 심한 혈액 이상 환자
- 심한 간장애 환자
- 심한 신장(콩팥)장애 환자
- 심한 심장기능저하 환자
- 아스피린 천식(비스테로이드성 소염(항염)제에 의한 천식발작 유발)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
- 다음의 약물을 복용한 환자 : 바르비탈계 약물, 삼환계 항우울제
- 알코올을 복용한 사람
-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, 갈락토오스 불내성(galactose intolerance),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(Lapp lactase deficiency) 또는 포도당-갈락토오스 흡수장애(gucose-galactose malabsorption)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.(유당함유 제제에 한함)

뒷면이어저>>

【저장방법 및 사용기간】 밀폐용기, 실온보관(1~30℃) 사용기간 : 제조일로부터 36개월

【포장단위】 1000정(조제용)

※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제조된 (KGMP) 적격업체 제품입니다. 만약 구입시 사용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유통 과정 중 변질·변태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.

※ 주의

- 사용전에 제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.
- 유통기한 사용법을 모르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·약사와 상의하십시오.
- 정해진 용법·용량을 준수하십시오.
-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
■제조원지 : 대우제약(주) -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63 (신평동)

■제 조 자 : 코오롱제약(주) -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18번길 45

■소비자상담전화 (서울)02-3477-1731 (부산)051-204-3831



대우제약(주)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원로 2495 현대빌딩 (서울동)
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53(신평동)

최종개정년월일: 2015. 01. 31
작성년월일: 2015. 01. 02

※ 이 첨부서 작성일자(2015년 1월 2일)이후 변경된 내용은 <http://www.daewoopharm.com>나 051-204-3831 (대우제약 개발부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

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어 있다.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 일일 최대용량(4,000mg)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.

4.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

-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
- 신장(콩팥)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
- 소화성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
- 혈액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
-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(혈소판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.)
- 심장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
-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
- 기관지 천식 환자
- 고령자(노인)
- 임부 또는 수유부
- 외파린을 장기복용하는 환자
- 다음의 약물을 복용한 환자 : 리튬, 치아짓게이노제

5.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.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

- 속: 속, 아니필락시양 증상(과민성유아증상 : 호흡곤란, 온몸이 붉어짐, 혈관부기, 두드러기 등), 천식발작
- 혈액: 혈소판 감소, 과립구감소, 용혈성(적혈구 파괴성)빈혈, 메트헤모글로빈혈증, 혈소판 기능 저하(출혈시간 연장), 청색증
- 과민증: 과민증상(얼굴부기, 호흡곤란, 땀이 남, 저혈압, 속)
- 소화기: 구역, 구토, 식욕부진, 장기복용시 위장출혈, 소화성궤양, 천공(뚫림) 등의 위장관계 이상반응
- 피부: 발진, 알레르기 반응, 피부점막만 증후군(스티븐스-존슨 증후군), 중독성표피괴사증(리엘 증후군)
- 기타: 장기투여시 만성간괴사, 급성체장(이자)염, 만성간염, 신장(콩팥)독성
- 광량투여: 간장, 신장(콩팥), 신근의 괴사
- 이 약에 대해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된 추가적 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.
발현빈도는 매우 흔히 $\geq 1/10$, 흔히 $\geq 1/100$ 및 $< 1/100$, 흔하지 않게 $\geq 1/1,000$ 및 $< 1/100$, 드물게 $\geq 1/10,000$ 및 $< 1/1,000$, 매우 드물게 $< 1/10,000$ 이다.
표. 자발적 보고율로부터 추정된 빈도에 따른 이 약의 시판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

면역계 장애

매우 드물게 : 아니필락시스 반응, 과민증

피부 및 피하(피부밑)조직 장애

매우 드물게 : 두드러기, 소양성(가려움) 발진, 발진

-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·평가에 따라 다음의 이상반응을 추가한다.

· 간담도계: AST 상승, ALT 상승
· 피부: 고정발진

6. 기타 이 약을 복용시 주의할 사항

1) 일반적주의

- 과민증상을 예측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.
- 소염(항염)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이 아닌 대증요법(증상별로 치료하는 방법)이다.
-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가.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(요검사, 혈액검사, 간기능검사 등)를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(줄임), 복용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
나.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.
-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가. 급성통증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복용한다.
나.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복용은 피한다.
다.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한다.
- 소아 및 고령자(노인)는 최소 필요량을 복용하고 이상반응에 유의한다. 과도한 체온강하, 허탈, 사지냉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열을 수반하는 소아 및 고령자(노인) 또는 소모성 질환 환자의 경우, 복용 후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.
- 다른 소염(항염)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한다.
-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없이 통증에 10일 이상(성인)또는 5일 이상(소아) 복용하지 않고 발열에 3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. 통증이나 발열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, 또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.
- 이 약 복용시 감염증을 겹으로 나타내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감염증이 합병된 환자의 경우에 의사처방에 따라 적절한 항균제를 함께 복용해야 한다.

2) 광량투여시의 처치

이 약을 광량복용시 어떠한 명백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더라도 신속하게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. 10~12시간 이내로 N-아세틸시스테인 정맥주사를 투여받거나 메치오닌을 경구 복용하여 간을 보호해야 한다.

7. 저장상의 주의사항

-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.
- 의약품을 원래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용(잘못 사용)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한다.